

“참된 말은 입밖에서 나오지 않는다”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23>



가난한 여인의 등불

부처님 오신 날을 준비하는 기간 내내 저는 절에서 강의를 하었는데 강의 시작하기 전 종무소에 앉아서 등을 달러오는 신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식구들 숫자를 손가락으로 꼽아가며 등이 몇 개 필요한지 세어보는 이, 좀더 값이 싼 등이 없는지를 낮은 소리로 묻는 이, 절대로 둘째 이불이 팔이들 이불보다 먼저 적히면 안 된다는 이, 깜짝 놀랄 거금을 등 값으로 '쾌척' 하는 이...

부처님 오신 날을 즈음해서야만 볼 수 있는 풍경들이겠기에 바라보는 재미가 꽤 컸습니다. 그런데 저는 즐겁고 기꺼운 마음으로 등을 짊어주는 사람들 사이사이에 그리 밝지 않은 표정을 띠는 사람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그들은 종무소 직원이 접수하면서 "초파일에 절에 오셔서 법문도 들어 보세요"라고 권하면, 등 값만 받으면 되지 뭐 그런 주문까지 하나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등을 짊어주는 짧은 시간 내내 그들의 모습은 마치 우는 아이 달려라고 마지못해 딱 하나 더 쥐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스님이나 절의 종무소 직원들에게 강제로 주머니를 털리더라도 하는 듯 등을 다는 것을 무척 억울해

결국 여인은 동전 두 닢을 겨우 동냥하여 등불을 밝힐 기름을 샀습니다. 여인은 그 기름으로 등불을 켜서 부처님이 다니는 길목을 밝히면서 "보잘것없는 등불이지만 이 공덕으로 내생에는 나도 부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밤이 깊어 다른 등불은 다 꺼졌으나 동냥으로 겨우 마련한 그 등불만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밝게 빛났습니다. 등불을 끄려고 애쓰는 야한 존자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질없이 애쓰지 말라. 그것은 가난하지만 마을 착한 여인의 넓고 큰 서원과 정성으로 켜진 등불이다. 그러니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 등불의 공덕으로 그 여인은 오는 세상에 반드시 성불(成佛)할 것이다.”

자기보다 하천한 여인이 겨우 등불 하나 밝히고서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프라세나짓왕이 한결같은 부처님께 달려가 자기는 수 천 개의 등불을 켜오니 자기에게도 수기를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으로부터 보기 좋게 거절당하였습니다.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 잡사)

요즘 같아서는 그저 여인의 등은 정말 할랄 것 없고 초파일 당일에 법당에도 들어가지 못하

동냥으로 겨우 마련한 초라한 등불 밝힌 여인 정성 다해 '성불' 서원... 밤새 꺼지지않고 빛나

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역난을 당하면 허겁지겁 커다란 곳간을 밝히고 허리를 굽히면서도 무속인들을 비천하게 여기는 이종실리가 초파일 등접수처에서도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어깃장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어떤 절에서는 정성껏 내시라며 등값을 정해놓지 않기도 한데, 더 험악한데 "차라리 등 값을 정해놓고 팔지..."라는 불변 목소리는 역시 터져 나옵니다.

찌푸린 얼굴로 절에 찾아와 마지못해 지갑을 열고 접수한 뒤에는 대웅전 문고리조차 잡아보지 않고 총총히 떠나는 '불자'들의 뒷모습을 보고 부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초파일 연등과 관련해 빠지지 않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거지 여인 이야기입니다. 동냥으로 입에 풀칠이나 하며 나날을 보내던 거지여인은 프라세나짓왕이 석 달 동안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옷과 음식과 침구와 약을 공양하였는데 그날 밤에는 또 수만 개의 등불을 켜 연등회(燃燈會)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하염없이 부러웠습니다.

"나도 등불을 하나 밝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난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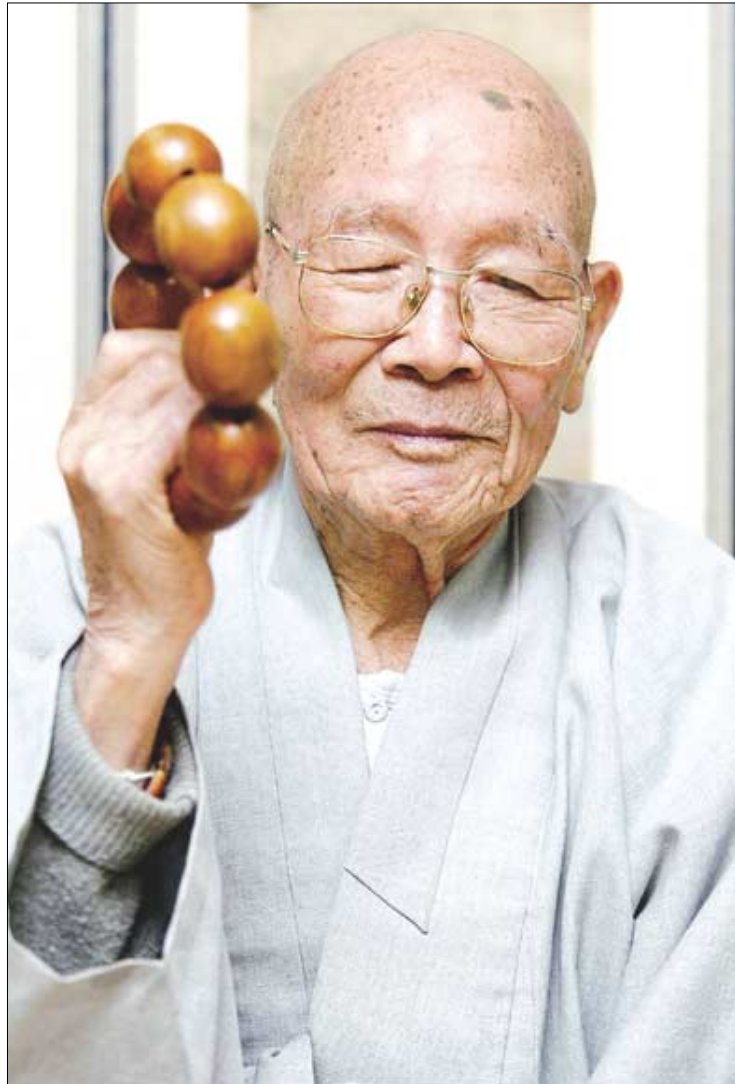
고 경내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냉대를 받다 버려질 게 뻔한 등입니다. 하지만 수 천 개의 등을 밝힌 왕도 받아내지 못한 담담한 보장을 부처님에게서 받아낸 등불입니다.

커다란 보시를 한 사람을 보고 한없이 기뻐하고 부러워한 그 마음, 하지만 자기도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다해 보시를 하려는 결심, 그리하여 작은 등불을 밝히면서도 그 속에 담은 '부처가 되고 싶다'는 서원. 이 세 가지가 담겨있어야 왕이 밝힌 수 천 개의 등불보다 더욱 빛이 났던 것입니다.

남이 하나니까 따라서 등을 사고, '좋다니까' 등을 달고, 정작 자기 자신이 가장 소망하여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고, 등을 왜 밝히는지 이유를 알아볼 마음조차 내지 않고, 값을 흥정하고 돈을 내밀고 장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총총히 떠나가 버리는 오늘날 불자들의 가슴 속에 거지여인의 등불이 빛을 비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부처님 오신 날에는 모든 이의 등불이 거지여인의 등불처럼 이 침침한 사바세계를 밤새도록 환히 비추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미형(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스님이 열반하시면 가는 곳이 어디가요?”라고 묻자 동산 스님은 “모른다”고 답했다. “그 모르는 곳이 어디냐”고 다시 묻자 스님은 염주를 왼 손만 붙들고 대답했다.

‘세계일화(世界一擧)’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정진을 했던 수덕산 정혜사 시절, 만공 스님은 무궁화 꽃을 피운 삼아 한국 불교사에 우뚝한 덕산의 가풍을 이 네 글자에 담아냈다. 그래서 경허에서 중흥의 씨를 피운 한국의 선불교는 만공에게서 즐거움, 튼튼히 하고, 오늘로 이어져 꽃을 활짝 피웠다.

아직도 그 세계일화의 꽃 한 송이가 성성한 수행력을 간직한 채 안면도에 피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효봉 성철 벽초 인곡 용운 해산 삼공 등 큰스님들과 함께 만공 선사를 모시고 정진했던 한 노스님을 만나기 위해 충남 태안 안면도를 찾았다.

송림사 동산 스님(92). 스님은 만공 스님의 예제

자신 보월 스님의 법맥을 이은 분이다. 만공에서 보월로 내려온 법맥은 동산 스님과 금오 스님에게 이어졌다. 보월 스님이 요절하자 만공 스님은 대신 동산 스님에게 법을 전하고 이를 보전케 했다.

삼배를 마치고 앉아 동산 스님께 “이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파와다”고 여쭙았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한참 염주만 굴리다가 마침내 말문을 여겼다.

“만공 노스님은 여름 겨울 실림을 시작할 때마다 법문을 하셨지.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무어냐면 바로 ‘진언(眞言)은 불출구(不出口)’라는 것이야. 참된 말은 입밖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야.”



동산 스님

(태안 송림사)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평생토록 수행 정진한 스님의 깨달음을 한번에 이해하려는 게 얼마나 큰 욕심인지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말을 내는 순간 그르친다는 스님의 답변에 순간 무릎을 더 굽어야 할지 깜깜하기까지 했다. 그래도 한번 더 욕심을 내어 스님께 그 뜻을 캐물었다.

“요새 사람들은 왜라고 묻고 따지길 좋아해. 그런데 불교는 왜라고 묻는 게 아니야. 만공 노스님은 이 말만 가르쳤을 뿐이야.”

직접 몸을 쓰지 않고 괴로움만 면해 보려는 게으른 불자를 경계하는 말씀일 게다. 그래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동산 스님의 수행 여정을 조금이라도 엿보기 위해 출가 동기를 물었다.

“출가 이유는 별게 없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절에 다녔어. 불교가 좋고 부처님이 좋았던 거지. 그래서 신심을 부처님께 무조건 바쳤어.” “무조건”이란 스님의 말씀이 가슴에 여는 다. 믿는다면 무조건 믿을 것이지 어찌 이유를 따지랴!

“불교는 왜라고 묻는게 아니야”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동산 스님은 마곡사 토굴에 수행하던 보암 노스님 밑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했다. 스님은 15살에 정혜사 서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사미계는 정혜사에서 만공 스님을 계사로 같은 해에 수지했고, 비구계는 서울 선학원에서 일봉 스님을 은사로 수지했다.

스님의 수행이 공경해 어떤 회두를 타파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스님은 “모두 잊어버려 회두가 뻥지 모른다”며 계승을 따르 짓지도 않았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만공 스님을 모시고 살던 정혜사 선방이 어퍼렸는지 묻기로 했다.

“정혜사 선방 분위기는 어땠다고 말할 게 없어. 이견 옳다. 저런 그르다 이야기할 게 없었어. 그 때는 대중 모두가 원만히 화합하고 정진할 따름이었지.”

“원만히 화합하고 정진했다”는 몇 마디 말씀에서 간절했을 당시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듯 했다.

“만공 노스님도 마찬가지로. 물론 초심 스님이니 모범적으로 정진을 했지만 어떻게 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 앉아서 즐기고 하시고 어떤 때는 꼭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고품질 장수 발효식품

전통 비법으로 산나물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 **山寺 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 **山寺 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 **山寺 조청**은 한의사 이기용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자문 거사님의 자문을 받습니다.
- ❖ **山寺 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웃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꽃 조청**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1.2kg

山寺 청미래 조청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임 예방에 탁월한 기여 1.2kg

山寺 기청량 조청
 상기, 기혈조절, 손발냉증, 보혈, 혈액순환에 기여 1.2kg

山寺 약도라지 조청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변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1.2kg

● 주문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금공사 054)372-3166, 372-5721**
 ● 입금 금 처: 농협 727077-52-056761(현수회)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수미산, 서역남로 대장정 31일

티베트 수미산 순례는 자기 성찰의 길입니다. 이번 순례는 티베트의 라사에서 수미산으로 그리고 곤륜산을 넘어 중국의 타크라마칸 사막을 지납니다. 이어서 실크로드 상의 서역남로의 길을 따라 호탄, 니야, 미란의 고대유적을 따라서 돈황석굴에 까지 이르는 대장정으로 이와 같은 대장정은 한마음 쉬고 가야하는 수행의 여정일 것입니다. 티베트와 중국의 대륙을 누비는 수행의 길에 동참하실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출발일 : 2005년 7월 5일 - 8월 4일 (31일간)
- 일 정 : 성도-라사-장체-시가체-라체-사가-파양-수미산-구계왕국-알리-도마-다홍리탄-마자르-예청-호탄-민풍-체르첸-차르크리크-루오지양-하루고-돈황
- 안내 : 이상원 011-352-3321
- 문의 및 접수 :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암

● 수미산 여행은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수미산여행은 수미산을 사랑하는 실크로드에 맡겨 주십시오.

입을 쉬고 정신을 길러라

를 잡수기도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했다. 그런 얘기 뭐 할 거 있겠어. 밥 먹고 차마시고 세수하는 것이 다 똑같은 뿐이야. 우리는 그냥 스님의 행동거지를 보고 배우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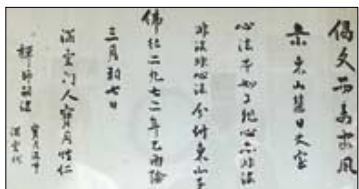
스님은 오로지 화두타파에만 몰두하는 수행자의 모습이 이렇듯 거라고 지레 짐작하는 불자들의 편견에 ‘할’과 ‘방’을 내리는 것 같았다. 앞을알이 에만 집착하는 우매한 중생이 해매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듯, 스님은 문득 이야기 하나를 덧붙여 썼다.

“밤이면 밤마다 부처님을 안고 잔다는 말이야. 아침이면 또 부처님과 같이 일어나 앉아, 마음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다만 그 말하는 이것이 바로 그 거야. 이걸 깨쳐야 하는 거야. 이야기 다 했어. 너무 많이 했네.”

“신심을 ‘무조건’ 바쳤지”

스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급한 마음에 스님이 입적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걸 알 수 있냐? 나도 몰라.” 또 다시 침묵. “그럼 스님, 그 모르는 것이 어 답니까?” “이것이이지.” 스님은 염주를 왼 손을 힘차게 내어 보였다. 스님은 다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몸과 마음으로 느끼라는 무언의 법문을 해주시는 게다.

“예전에 일제가 총본산을 만들어 한국불교를 일본불교에 합병시키려고 했지. 그 당시 마곡사 주지였던 만공 스님도 총독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어. 그런데 한 스님이 ‘데라우치 총독이 스님들을 친민 신분에서 해방시켜주고 불교를 잘 되게 해줬으니, 우리는 스님 노릇 잘해 총독의 은혜를 갚자’고 하는 거야.



만공 스님이 보월 스님을 대신해 동산 스님에게 주었다는 전법계.



모든 수행의 기본은 좌업을 쉬고 마음을 기르는 ‘식업양신(息業養神)’이라는 동산 스님. 스님은 젊은 불자들에게 ‘식업양신’ 할 것을 당부했다.

그 말을 듣고 만공 스님이 뉘를 법단에 올라갔어. 그리고는 ‘지금 데라우치 총독이 무간지옥에 들어가서 환없는 고통을 받으니 우리 7천여 스님들이 스님 노릇을 잘해 총독의 지옥고를 면하게 하라’고 딱 법문을 하는 거야. 사람들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말을 하냐고 추궁했지. 그래도 스님은 ‘언권(言權)은 나한테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며 ‘청정본연(淸淨本然)이니 운하출생산하대지(云何出生山河大地)’라 하고는 그 자리에서 ‘할’을 해 버렸어. 그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미나미 총독도 별별 떨더군. 스님은 그만둘 대장부였어. 그러니까 총독이 스님을 상석에 모시고 대접을 했지.”

스승 만공 스님은 동산 스님에게 그만큼 호방한 호남이었다.

스님의 이야기는 독립 운동을 하던 만해 스님을 걱정할 일화로 옮겨갔다. “스님은 만해 스님에게

‘몸은 몽둥이를 휘두르지만 사자는 사자후를 한다’는 말로 경계를 했다. 선학원 조실이던 만해 스님은 당시 한참 일본을 비난하는 글을 불교 잡지를 통해 발표했어.” 거침없는 행동 때문에 혹시나 만해 스님이 잘못될까 걱정했다는 것이다.

후학을 사랑하는 만공 스님의 자상한 마음을 느끼며 젊은 불자들이 어떻게 수행을 하면 되는지 물어보았다. 역시 선승답게 동산 스님의 답변은 간단했다.

“오직 ‘식업양신(息業養神)’을 하도록 노력해.” 식업양신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물어보았다.

“만공 노스님께서 보통 법문을 하시면 꼭 이 말을 잊지 않았어. 입을 쉬고 정신을 기른다는 말이야. 정신을 기르고 약한 좌업을 다 쉬고 소멸해 버려야 해. 화두 염부 기도의 근본이 식업양신이고, 식업양신이 곧 화두야. 참선하는 스님들의 공부법도 식업양신이야. 요새 젊은 사람들이 늙은이 말 안 들어도 식업양신만은 잘 해야 해.”

밤마다 부처님 안고 잠들다

스님 친견을 마치고 저소를 나서자 굵은 빗줄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노스님은 젊은 손님을 꼭 배웅하겠다고 기어코 자리를 털고 일어나다. 간곡한 만류에 문밖을 나서는 것은 포기하셨지만 젊은이들이 감기 걸릴 것을 걱정하셨는지 우산을 들고 가라며 손에 쥐어 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동산 스님이 걸 떠나는 객에게 선물로 들려준 시를 읊미해 보았다. 만공 스님이 금강산에서 수행하며 지었다는 시다.

신등벽공(身騰壁空)
족하비로(足下毘盧)
안리대해(眼裏大海)
세안세족(洗眼洗足)
불시고야(不見苦也)

몸이 푸른 하늘을 오르니
발아래가 비로자나아네
눈 안에 동해 큰 바다가 있어
눈을 씻고 발을 씻으니
이것이 고가 아닌가?

글=강유신 기자·사진=박재환 기자



현성 스님의

스님이야기

지수 스님

지수(智首) 스님은 내가 운문암(雲門庵) 선원에서 언어이 두 번 살 때 여름 안거를 같이 산 스님이다. 스님은 전 황에 눈이 많기로 유명한 수도암(修道庵)에서 입승을 살며 겨울 안거를 마치고 운문암으로 오셨다. 나는 그때 불전 예불과 청소 담당인 지전(俵殿) 소임을 맡았고, 지수 스님은 한주(間主) 소임을 사셨다.

운문암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구름과 안개로 유명하다. 어떤 때는 며칠씩 구름에 싸여 햇빛을 볼 수 없을 때도 있었다. 산도 구름, 하늘도 구름, 산 밑도 구름이어서 그야말로 고립무원이 되어버린 때도 많았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방문을 열어놓고 산 아래에 펼쳐진 광경을 보며 단정히 앉아 차를 마시는 스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림·문병성

스님은 그렇게 차를 좋아하시고 꽃과 새 같은 자연에 관심이 많았다.

스님은 일반 선승의 경력에 비교하면 화려한 편이다. 스님은 한때 송광사에서 강사를 역임하고 대흥사에서 수련원장을 하며 재가불자들을 지도했다. 그러다가 해외 포교에 대한 원력이 있었는지 영국에 포교당을 개원하였다.

10여 년 동안 영국이나 포르투갈 등 유럽을 오가며, 선(禪)을 지도해서 무명(無明)에 싸여있는 외국인들에게 해안을 밝혀주었다. 스님은 지금도 안거가 끝나면 유럽을 돌며 법회를 열고 참선 지도를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

보통 스님들이 직책을 갖게 되면 그 달콤함에 빠져서 헤어지지 못하게 된다. 마치 칼날 위의 꿀을 혀로 맛있게 핥아먹고 있는 격이다. 그러나 지수 스님은 그런 생활을 접고 당당하게 선(禪)의 길을 택하였다. 아나, 이판과 사판의 길은 들이 아니며 한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요즘 번사주지나 총무원 소임을 마친 스님들이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곁방을 지고 선원에 가는 모습을 보면 같은 수행자로서 존경스럽다. 내가 지수 스님을 처음 보았을 때의 느낌은 깔끔하고 간간함 그 자체였다. 그러나

나중에 안 일이지만, 작고 아름다운 것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따뜻한 마음도 가지고 계셨다.

스님은 점심공양이 끝나면 스님의 상정인 까만 선글라스와 밑질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들고 산행을 나서곤 했다. 나를 비롯해 몇몇 젊은 스님들이 스님의 산행에 가끔씩 동행했다.

한번은 의견이 모아져서 절에서 가인봉까지 속도를 높여 가기로 한 적이 있었다. 거의 십리 거리의 산길을 거의 뛰다시피 하였다. 지수 스님이 앞장서서 참나무 숲과 들밭 길을 지나고 시누대나무 사이를 번개처럼 달렸다. 스님은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오히려 젊은 스님들이 뒤처져서 낙오자가 생겨났다.

스님은 몸 관리를 철저히 하셨다. 젊은 스님들이 해제 철이라고 해서 몸을 함부로 놀리거나 아니면 공부한담이고 몸을 다 버려서 고생할 때도 스님은 아픈 티를 내지 않았다. 사실 수행자가 몸이 아픈 것은 자기 자신이 마음을 잘못 쓰거나, 아니면 몸 관리를 하지 않고 깨물려서 그런 경향이 많다. 지수 스님은 자기 관리에 철저했다. 건강도

다양한 경력·직책에

걸림없이 자유롭고 간간

수행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렇게 스님과 산행을 하면서 나는 스님에게 새나 꽃 이름에 대해서 많이 배우었다. 운문암의 상왕봉과 사자봉 주위에는 내가 모르는 이름 모를 꽃들이 무수히 피어났다. 들레나물, 동자꽃, 노루오줌꽃 같은 꽃들은 다 운문암 주위에서 피는 꽃들인데, 모두 다 지수 스님에게서 처음 듣고 배운 꽃이름들이다.

또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면 저 소리는 되지 빠구나. 으스스한 저 소리는 호랑지빠구나 하며 자상하게 가르쳐주었다. 내가 매일 오르는 상왕봉 등성에서 매일 꽃대늘개 울어대는 새소리가 휘파람새라는 것도 스님에게 배웠다.

스님은 현재 김상사에서 시민선방의 선원장을 맡고 계신다. 이제 안거가 시작되면 스님은 번잡한 도심을 떠나 다시 결망을 써서 선원으로 들어갈 것이다.

직책이 따라다니면서도 흐르는 강물처럼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스님, 녹자를 즐기는 스님, 자연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스님, 젊은 스님들이 잘못하면 지적하고 꾸짖을 줄 아는 간간한 스님.

스님의 수행이 날로 수승해져서 황벽 스님의 시구(詩句)처럼 ‘빼어 사무치는 추위를 만나고 나서, 코를 찌르듯 진한 매화 향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현성 스님은 괴산 공림사에서 출가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했고 그동안 송광사, 운문암 등에서 참선 전지에 왔으며 현재는 충북 청원 현암사에서 총무소임을 맡고 있다.

만공·보월 스님 법맥 이어 평생정진

동산 스님은

동산 스님은 수덕사 스님들에게 몇 안 되는 어른 중 한분이다. 만공 스님은 보월 스님을 대신해 ‘십법을 스님께 전한다’는 전법계를 동산 스님에게 내렸다. 스님은 만공 스님의 태산 같은 은혜를 갚기 위해 세수 아흔을 남긴 지금까지 만공 스님 차례제에 한번도 빠진 적이 없다. 그에

서 수덕사 문중 스님들은 동산 스님을 ‘하늘이 두 쪽 나도 만공 스님 차례제만큼 꼭 챙기는 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스님은 차례제에 참석하면 꼭 후학들에게 경책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1983년 동산 스님과 수덕사 초대방장인 해암 스님이 법거방을 한 것은 한참 동안 수덕사를 출입한 수와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만공 스님

차례제 날 동산 스님은 “화소참불면(花笑慘佛面)이니 의제가 어퍼하십니까”라고 묻자, 해암 스님은 “수불리파 파불리수(水不離波 波不離水)이니, 오늘 차례법문은 동산 스님이 다했다. 시자야, 스님게 포도주 한잔 드려라”고 했다.

동산 스님은 28세에 정해사 주지 소임을 맡아 대중들의 공부를 도왔다. 그 이후에는 대승사 송광사 심원사 마곡사의 선방과 강원을 돌며 수행을 했으며 경허 스님의 보임자인 천장암에서 30년간 주석하며 후학을 가르쳤다. 그 덕분인지 지지들이 동산 스님을 만난 바로 직

무기와 번뇌의 마음을 여래심으로 바꾸는 수행체계

법기 불교대학 수강생 모집

바른수행과 바른깨침의 길을 제시하는 법기불교대학은 불교기초교리, 수행방법, 수행단계등을 강의와 수행점점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합니다.

[강의 일정]

차레	강 의 내 용
1강	입제, 불교바로보기 / 사찰의례 (삼귀의, 사물서원, 전각법당, 사찰예절, 화장, 절하는법, 예불문), 100배
2강	중생의 마음 (무기번뇌, 가아·진아) / 친목의 시간
3강	수행방법 (결단관, 수행자호흡법, 설관 / 염법) / 법담 나누기
4강	요처수행(산행)
5강	기초교리 (4성제 8정도, 3법인, 5온, 12처18계, 연기법) / 호흡점점
6강	심매와 삼매관성, 경계와 법, 입정소멸의 원리 / 선배의 수행경험담
7강	[토요일] 철야정진 / 상기의 극복(멜로디), 자식호흡과 반자식호흡
8강	수행자의 건강관리 / 반별 법담 (도반의 수행담)
9강	좌선과 행선 / 돈오이전의 수행단계와 수행방법
10강	유어열반과 무어열반 (돈오, 무법, 반야, 삼신불) / 이권관, 안근관, 호흡점점
11강	봉사활동
12강	기록불교, 염불선, 북방불교, 남방불교의 비교분석 / 멜로디 연습
13강	불교상식 바로 알기 / 설문조사, 발원(영근)
14강	수료식 / 선지식 복문

부산 법기불교대학 <제 7기>

·개강: <이강년> 2005년 6월 7일(화요일) (오후 7:30 - 9:30)

<주간년> 2005년 6월 8일(수요일) (오후 2:00 - 4:00)

·기간: 3개월, 주 1회씩 수업

·접수: 부산법기선원 (T.051-516-9104)

서울 법기불교대학 <제 5기>

·개강: <이강년> 2005년 6월 23일(목요일) (오후 7:30 - 9:30)

<주간년> 2005년 6월 24일(금요일) (오후 2:00 - 4:00)

·기간: 3개월, 주 1회씩 수업

·접수: 서울법기선원 (T.02-854-1848)

*수강료: 총 65,000원 (교재비 포함)
*수강생 편의에 따라 중복 수강 가능합니다.
*www.bubkisa.or.kr (한글도메인 법기사)



바른수행 바른깨침 법기선원

www.twotwocom.co.kr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金剛壯士

- 200여 가지의 출력양식 지원 (축원, 등표, 위패, 향부, 무원명서 등)
- 나이별 편지 발송 기능을 내장한 막강한 생일관리 기능
- 국내의 모든 우편물 양식을 지원하는 우편물 발송 기능
- 신도의 효율적 관리의 핵심, 행사관리(인동, 연등, 기타행사)
- 단위 사찰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회계관리 기능
- 영가위패를 한꺼번에 입력, 출력, 관리하는 영가관리 기능
- 그 외 명함관리, 일정관리, 출력관리 기능
- 특정속원만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모듬처리 기능
-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전송가능

최고의 전문 영학 프로그램 두두컴퓨터! 두두컴퓨터에서 만나보십시오!

저희 투투컴퓨터에서는 사찰신도관리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종단관리 프로그램, 납골당관리 프로그램, 회계관리 프로그램** 등 고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문의가 있으시면 서울 투투컴퓨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투투컴퓨터

서울 (02)585-1141 부산 (051)505-2434 대구 (053)563-9841 제주 (064)721-2434